

Market Index / 9일

코스피지수 ▼ 2052.03 -12.14

코스닥지수 ▼ 657.80 -10.92

유가(WTI, 달러) ▲ 57.66 +0.15

환율(원) 1USD 1203.70

100¥ 1105.38

1162.30 1067.36

1EUR 1351.80

180.22 1299.06 163.06

초복 코앞인데 닭고기값 날개 없는 추락

산지가격 1100원대 작년 동기 대비 22% 급락 "7~9월 휴가철 소비축진 통한 가격 상승 기대"

닭고기 소비가 많은 초복이 나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비 부진은 여전하다. 최근 낮은 장마에 의한 초여름 날씨로 몸보신이나 야외활동이 예년에 이맘때에 견줘 크게 줄며 당분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산 닭고기 산지가격은 1kg 기준, 1100원대에 출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10원에 견줘 22% 가량 낮

게 형성되고 있다. 이 기간에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가격 하락률인 4.4%와 1.9%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가장 크다. 하지만 도내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kg 기준, 6670원으로 변동폭이 거의 없어 대조적이다. 이에 따른 삼계탕 가격도 부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부분 적게는 1만원에서 1만5000원 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7월 중 전국 닭고기의 생계유통가격은 도계마릿수의 증가와 생산성 회복으로 1kg당 1100원~1300원 선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467원 보다 11~25% 정도 낮게 형성된 가격으로 전국 대부분이 유사하다.

7~8월은 초복(7.12), 중복(7.22), 말복(8.11)은 물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치킨 등 닭고기 소비가 집중된다. 그럼에도 산지가격 하락이 예측된 이유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식용닭(육계) 입식(병아리)를 사육농가에 들이는 것이 늘면서

사육마릿수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닭들이 생육하기 좋은 기상도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어 지난해보다 폐사율도 크게 감소한 것도 닭고기값 하락의 한 요인이다.

제주도내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공급초과 부분이 닭고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소비가 집중되는 7~9월에 소비 확대를 통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무더위 식히고 가세요"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고객을 위해 9일부터 8월 말까지 제주농협지역본부 제주영업부 객장에서 무더위 이색 테마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사진=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 제공

제주공항 상반기 이용객 1500만명

인천 제외 지방공항 중 최대

올해 상반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주요 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국제공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제주공항 이용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1509만50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드 사태로 크게 줄었던 제주 방문 중국 관광객이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인 것이 전체 이용객 증가

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사상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곳은 김포공항으로 전년보다 0.7% 늘어난 1239만7034명을 기록했다. 이어 김해공항 867만3366명(1.1% ↑), 대구공항 247만4607명(24.7% ↑) 순이다. 대구공항은 국제선 신규 취항과 노선 다변화에 힘입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상민기자



올해 상반기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이 1500만명을 돌파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주요 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리일보 DB

7월 제주 분양지수 전망치 '냉랭'

지난달 대비 16.9p 하락 전국 최하위권 머물러

7월 제주지역 분양경시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다. 지난달 전국 최하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침체된 도내 부동산 경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HSSI가 68.7로 6월보다 8.6p 떨어지며 3개월 만에 60선을 기록했다. 제주 전망치는 45.0으로 전달의 61.9에서 무려 16.9p 급락하며 충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에 따른 실적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의 HSSI 전망치는 여름 휴가

철을 맞아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의 양극화와 국지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서울(93.6) 세종(95.4) 대전(83.3) 광주(80.0) 등이 80~90선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넘지는 못했다.

지난달 전망치가 100.0이던 전남은 이달 68.7로 31.3% 곤두박질 쳤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 기대, 이하면 부정적 반응을 의미한다.

한편 7~9월(3분기) 제주지역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462세대다. 특히 입주 물량은 9월 영어도시를 포함해 서귀포시에 집중되며 향후 분양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금탁기자

"감귤 성장 열쇠는 자체 생산·공급량 조절"

제주농업·농촌 심포지엄서 이용선·박한울 연구원 발표 단기·중장기적 정책도 조인

감귤 품종개발 한계, 재배능가 고령화, 인력난 등 감귤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에 따른 농정당국의 자체 생산·공급량 조절이 제주감귤산업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 연구위원과 박한울 전임 연구원은 9

일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진행된 '제주도 농업·농촌 특별 심포지엄'에서 '제주 감귤산업의 미래전망과 대응'의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향후 국내 차원에서의 감귤 품종 개발 및 육성이 되지 않은 한 품질 개선은 어렵고 일본감귤 품종 도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감귤 재배능가의 경영주 연령은 향후 10년 후에는 70대 이상 농가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40대 이하의 거의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외부 노동력 고용도 최저 임금제 도입 등에 의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고령화로 인한 부족 및 감귤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제주감귤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귤 생산·공급량에 대해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며 "자체 공급량 조절이 가장 효과적인 가격안정화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감귤류를 비롯한 과수 수급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 "만감류 가운데 천혜향·레드

향 감귤도 최근 증가세가 약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신규 식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들은 ▷저장을 통한 출하량 조절로 공급 차별화 ▷타이백 기술 적용한 당도 높이기 ▷꽃굴의 안정적 판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감귤 재배능가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으로 농기계 및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업인력센터 우선 연계를 통한 노동력 부담 경감 등의 단기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능가의 제3자 승계, 법인 승계 등을 포함한 경영지원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하귀2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리산조망 2억2천	서흥동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유수암리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연동1.5름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 좋음 1억5200만	토산리(급매)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와흘리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특 3억4500만	고산리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	---	--	---	--	--	--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엽
위치: 연복로 606, 3층

제주향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참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오동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함림읍 웅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동부 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기념해안도로점 2474㎡ 15억 원	※하례5.16도로동축과수원 8856㎡ 11억 원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해안동마을 맹지 674㎡/매기50㎡ 5억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선술검은오목 북측 주택부지 1002㎡ 2.2억
해안동 생관림(과장) 맹지 28,842㎡ 6억	봉성 시민도로점 임야 842㎡ 6000만원	신촌 2층주거지역 대 157㎡ 1.7억
상령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
수신동 재수지근 카페음영관광호텔 620㎡ 3.1억	유수암 2차선 번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판포 바다관광 곳 자연녹지 3028㎡ 6.49억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오리정실 마을내 587㎡ 7.65억 원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인도이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8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복비	60만	30만
고급	"	4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역외영은 합니다.
NAVER **제일사** 검색

